

강원도정 소식

### 추석 대비 부정축산물 단속 위반업소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강원도는 추석 성수기를 맞아 수입쇠고기 등이 한우로 둔갑판매되거나 위생이 불량한 축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8개 시·군 및 명예축산물감시원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추석 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달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도축장·식육포장처리업소·축산물가공업소 등 축산물 작업장을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유통 여부,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 원산지 표시 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또 갈비가공품(갈비셋트), 식육추출가공품(엑기스), 햄류(햄세트) 등 선물용 축산물을 가공·포장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해 부정축산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총 2천5백여개 업소에 대한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을 실시해 112개소를 적발했으며, 허가취소 5개소, 영업정지 4개소, 과태료(과징금) 3천5백만원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최광호 기자

### 민주당 강원도당 운영위원회 개최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최종원)은 지난 16일 오전 11시 도당 회의실에서 최종원 위원장과 송훈석 국회의원, 박우순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등 도당 운영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구성, 도당 고문단과 부위원장단 임명 등 당무에 관해 논의했다. 또 제19대 총선 원주시 분구를 추진하기 위한 당 차원의 대책, 당내 조직 강화 차원의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다.

최광호 기자

###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



고성군은 지난 17일 오후 3시 군청 제1청사 소회의실에서 30일간의 하계 아르바이트 활동을 마친 대학생 87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종국 군수는 학생들에게 지역에 대한 사랑을 당부하고, 건의된 내용을 수렴해 내년 하계 아르바이트 운영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승근 기자

구독신청 681-1667

# 고성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 행정력 낭비 줄여... 실생활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등

고성군은 법령 제정으로 자치단체에 위임된 자치 법규 및 법령 개정·폐지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거나 주민에게 규제가 되는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다.

군은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자치법규에 대해 규제완화와 환경 변화 등으로 개정된 상위 법령과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7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각 실과 소의 자치법규 정비대상 일제 전수 조사를 거쳐 8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개한다.

정비대상은 △상위 법령 개정·폐지 △여건변화 등에 따른 조문불일치 사항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 △기구·조직개편 등으로 용어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 △군 실정

및 주민의 실생활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 등이다.

법제부서에서 자치법규의 개폐 여부를 검토해 입법절차를 거쳐 정비해 나가게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반복되는 입법절차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행정이 보다 합리화되고 간소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광호 기자

# “농정원 설립 시너지 효과 불분명”

## 송훈석 의원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 상정 법률안 정책질의

농림수산물부가 제출한 ‘농림수산물품교육문화정보원’ 신설을 골자로 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송훈석 국회의원(속초-고성-양양, 사진)은 지난 18일 진행된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 상정 법률안 정책질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의원은 “농식품부가 기존의 3개기관을 통합해 ‘농정원’을 설립하면, 현원 기준으로 98명(정원

78명)의 거대 조직이 생겨나는 것”이라며 “그러나 직접적인 연계성이 낮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이들 3개 기관을 이처럼 단순히 통합한다고 하면 기능의 일원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불분명하고 기관간 인적·물적 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칫 심각한 내부적 갈등과 반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의원은 또 의원제출법안인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법률안 개정심의회 어항 본연의 기능을 지키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의원은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관광어항의 개발을 다른 어항개발사업에 우선해 실시하

도록 하고 있다”며 “이 경우 어선의 어업활동 제약으로 수산업 기반 약화가 초래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송의원은 산림청 소관법률안 심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입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시·도지사에 기능 이전시 지자체의 조직·예산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의원은 “개정안은 시도지사에 임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국민생활안전에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재에 대한 품질인증 업무까지 지방정부로 이양 할 경우 품질안전 담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 에너지 위기 극복 공직자가 솔선

## 고성군 하절기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 수립 ... 실내온도 28도 유지

고성군은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해 초 고유가를 보임에 따라 지역에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하절기 에너지 절약실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하절기 냉방 여건 개선 및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해 각 실과소의 에너지 절감 목표달성을 위한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우선 ‘하절기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실내 평균온도를 28도 이상 유지하며 냉방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복도 등 공용 공간 추가 소등, 사무실 창측 채광정도에 따른 조명등 켜

등, 야간·휴일 근무 때 부분조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사무실 내 책상 위치에 따라 온도 차이가 발생하고 창가 등 취약지역 근무자는 30도 이상 폭염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해 업무효율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온도 측정 방식을 개선해 창 또는 외벽 등 4개면과 중앙 1곳의 온도를 측정하는 평균온도를 산정해 냉방 운영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전직원 차량 청사내 주차금지, 출퇴근시 승용차 카풀제운영 및 시내 거주 공무원을 대상으로

걸어서 출퇴근하기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승용차 5부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단속반을 편성해 공무원 자가승용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 위반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전 직원 정시퇴근과 복장 자율화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커피자판기, 냉온수기 등 불필요한 전력낭비요인이 되는 전기제품은 근무시간 외에는 전력을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대기전력 손실을 차단하기로 했다.

최광호 기자